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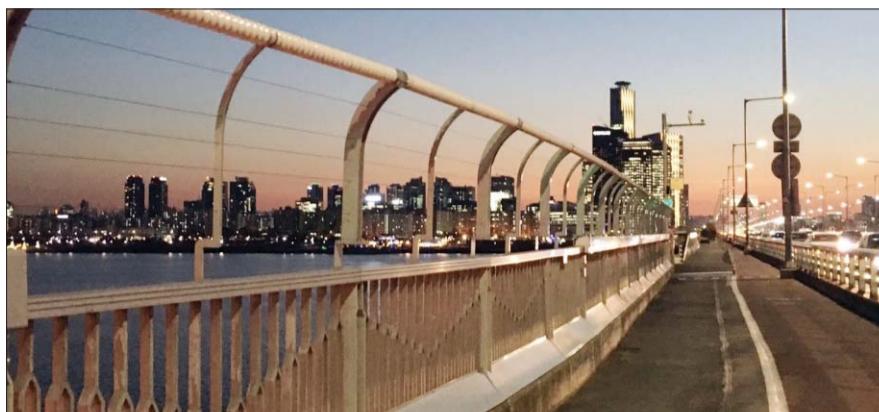
마포대교 투신 주니, 他 교량 자살자↑… 난간 확대키로

서울시, 한강교량 자살 시도자 분석

한강다리에 자살방지 난간 설치 인접교량 자살시도 38.5% 증가 자살시도 많은 곳은 마포대교

서울시가 마포대교에 자살방지 난간을 설치한 이후 투신시도자 수가 26.5%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풍선 효과(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현상)로 인접교량의 자살시도자 수가 증가해 시는 투신자가 많은 한강다리에 자살방지 난간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2일 시에 따르면 마포대교 자살시도자는 2016년 211명, 2017년 163명에서 2018년 155명으로 56명 줄었다. 시가 지난 2016년 다리 난간에 와이어와 롤러로 된 안전시설물을 설치한 이후 투신시도자 수가 26.5%나 감소한 것



기존의 1.5m에서 1m 높아진 마포대교 난간 일부분에 설치된 롤러

/김현정 기자

이다.

반면 같은 기간 마포대교와 가까운 한강·양화·서강대교의 자살시도자 수는 83명에서 115명으로 38.5% 증가했다. 마포대교에서 줄어든 만큼 인접교량의 자살시도자 수가 늘어난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화·한강대교에도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라며

“마포대교에 자살방지 난간을 설치한 이후 투신자 수가 줄었고 양화·한강대교는 마포대교 다음으로 자살시도자 수가 많은 곳이어서 안전시설물 설치를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가 2013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한강교량 자살시도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통행 가능성이 높은 교량일수록

자살시도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과 유동인구 등이 투신시도자 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살시도자가 가장 많은 한강교량은 마포대교(989명)였다. 한강대교(273명), 양화대교(152명), 잠실·원효대교(112명), 서강대교(104명), 한남대교(96명)가 뒤를 이었다. 자살시도자 수 1위를 기록한 마포대교의 경우 근처에 지하철역(여의나루역, 마포역) 2곳과 주차가능 지역 1곳이 있어 접근성이 높은 데다가 여의도 한강공원과 상업지구가 가까워 유동인구도 많다.

마포대교 다음으로 투신시도자 수가 많은 한강대교는 인근에 지하철역(노들역) 1곳과 주차가능 지역 2곳이 있다. 근처에 이촌 한강공원, 노량진 상업지구, 노들섬 등이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

나고 유동인구가 밀집돼 있다.

시는 마포대교 자살방지 난간 설치 후 2년간 모니터링한 결과 자살시도자가 감소함에 따라 다른 한강교량에도 안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시는 ▲한강교량의 자살시도자 수 감소 ▲난간 높이 증가로 자살시도 시간 지체 및 생존 구조율 증가 ▲종동적인 자살시도자 회유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현재 ‘한강교량 자살방지 난간 확대 설치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로 총 3억 9922만원이 투입된다. 실시설계 계약 절차를 진행 중이며 투신방지 난간 설치가 확정된 곳은 한강대교와 양화대교다.

시 관계자는 “실시설계 용역은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한강·양화대교의 자살방지 난간 설치 공사는 2021년까지 마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SH, 고덕강일지구 마지막 아파트부지 매각

사업자 선정, 토지매각대금 2262억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총 14개 블록으로 이루어진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중 마지막 물량인 10블록을 현상설계 공모 방식으로 민간에 매각한다고 2일 밝혔다.

고덕강일 10블록은 총 3만5321㎡ 부지에 전용면적 60~85㎡ 415세대, 85㎡ 초과 178세대 등 총 593가구의 분양 아파트를 건설하게 된다. 가장 우수한 건축설계안을 제안한 사업자에게 매각된다. 토지매각 대금은 2262억원이다.

고덕강일지구는 강남, 잠실, 천호, 하남으로 연결되는 서울 동남권역 발전축에 위치해 있다. 고덕택지, 하남미사지구 강일지구 등과 접한 서울의 배후주거지로 자연·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소셜 스마트시티로 만들어진다.

앞서 SH공사는 민간에 매각하는 고덕강일지구 공동주택용지 3개 블록 가운데 1블록과 5블록을 매각했다. 이번 10블록도 올해 상반기에 사업자를 선정한 1·5블록과 같은 매각 기준을 적용한다. 소셜 스마트시티 구축과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조성 등이다.

SH공사는 응모작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을 공개하고, 심사 과정을 SNS로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다.

공사는 이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를 공고한다. 이후 응모신청(9월9일), 응모작품 접수(12월2일)를 거쳐 심사평가를 통해 12월 사업자를 선정한다. 토지계약은 12월 말 체결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와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이 악수하고 있다.

/경기도

韓 항공의료에 새 지평… ‘닥터헬기’ 운영

경기도, 지난달 29일 시뮬레이션 24시간 운영… 구급대원 6명 상주

이 지사는 또 “소음이나 위험성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반발도 있겠지만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는 점에 대해서 도민들이 동의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작은 민원에 흔들리지 않고 생명을 지키는 일에 더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국종 센터장은 “닥터헬기는 통상적인 환자 이송 업무 정도만 가능했던 기존 닥터헬기와는 달리 산악구조 등과 같은 고난도 구조업무 등 소방 관련 임무는 물론 해상작전까지 가능하다”며 “격오지의 주민뿐만 아니라 해병대 전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헬리콥터로 응급 중증외상환자를 이송하는 것 자체도 대한민국에 없었던 패러다임인데 더 나아가 소방과 완전히 융합된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라며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항공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 소방헬기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센터 출동 실적은 지난 2016년 126건, 2017년 194건, 지난해 223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박완희 기자 wanhee@

‘버스 막차 연장’… 추석에는 막차 걱정 無

서울시, 5대분야 추석종합대책 고속·시외버스 평시比 28% 증편 올빼미버스·심야택시 확대 운영

서울시는 6일부터 16일까지 안전·교통·물가·나눔·편의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석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귀경객이 몰리는 13~14일에는 버스·지하철 막차 운행을 익일 오전 2시까지 연장한다. 막차 연장 버스노선은 서울역 등 5개 기차역(서울, 청량리, 영등포, 용산, 수서)과 강남터미널 등 4개 터미널(강남, 동서울, 서울남부, 상봉)을 경유하는 129개 노선이다.

10~15일 고속·시외버스(서울발 기준)를 평시 대비 28% 증편해 하루 최대 13만명을 수송할 계획이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11~15일 운행 시간을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4시간 확대한다.

올빼미버스와 심야택시도 확대 운영한다. 올빼미버스는 9개 노선 72대, 심야택시는 3124대를 운행한다.

이와 함께 시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

해 사과, 배 등 9개 추석 성수품 공급 물량을 늘린다. 서울광장과 태평로 일대에서는 6~9일 ‘2019 추석명절 농수특산물 서울장터’를 연다. 전국 14개 시·도 1100여 품목의 농·수·특산물을 판매한다. 시는 올해 참여 부스를 175개로 확대했다. 판매 부스에서 결제와 함께 바로 택배를 보낼 수 있게 하고, 제로페이 할인쿠폰 4000장을 제공한다.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위문품비를 16만3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3만원씩 총 48억 9000만원을 지원한다. 독거어르신, 쪽방거주민 등 주거취약세대, 한부모 가정, 긴급 위기가정 등 1725세대에 5000만원 상당의 생필품과 추석맞이 특별선물을 제공한다. 신선식품과 쌀, 라면 등 식료품을 한부모 가정 등 소외계층 10만 세대에 특별 지급한다.

시는 연휴기간 진료 공백이 없도록 당직·응급의료기관 480개소, 휴일지킴이 약국 1164개소 등도 운영한다.

전통시장, 교통, 문화행사, 병원·약국 등 서울시 추석 연휴 정보는 다산콜센터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서울소비경기지수, 또 하락

서울연구원, 월간소비지수 매월 발표

올해 7월 서울소비경기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5% 하락했다. 의복 및 가전제품 소비 죽소, 대형마트와 홈쇼핑에서의 지출 감소가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은 2일 ‘2019년 7월 카드 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서울소비경기지수’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5% 줄었다. 음식료품·담배(13.8%) 및 무점포소매(6.9%)는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지난달까지 호조를 보이던 가전제품 소매업이 소비 부진을 보이면서 가전제품·정보통신이 큰 폭으로 감소(-11.5%)했다.

편의점(1.3%)을 제외한 백화점(-1.1%), 대형마트(-16.9%), 면세점(-16.8%) 등의 소비가 주춤하면서 종합소매업은 전월보다 감소폭이 확대(-5.3%)됐다.

숙박업은 증가세를 유지하며 8.8% 상승했으나 음식점업은 전월과 비슷한 감소폭(-1.7%)을 유지하면서 숙박·음식점업은 전년 동월 대비 0.9% 감소했다.

/김현정 기자